

Music Biz Weekly Brief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4호 2009.1.1~2009.1.8

## I. Analysis Overview ..... 1

---

## II. 국내 동향 ..... 4

---

1. 산업정책 및 제도 ..... 4
2. 음악업계 동향 ..... 8
3. 소비자동향 ..... 10
4. 언론동향 ..... 16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 18

## III. 해외 동향 ..... 18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8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 20

## I. Analysis Overview

<b>&lt;국 내 동향&gt;</b>	<b>4</b>
[산업 정책 및 제도]	4
- 김평수	
<b>저작권 사회협약체` 출범 예정</b>	4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이용자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가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	
<b>정부와 국회, 묻지마 저작권 소송 근절 방안 고심</b>	4
대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나이 어린 네티즌 대상 '묻지마 고소'가 있을 때 초범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각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b>美 음반협회, 불법복제 증거수집대행사와 결별</b>	6
미음반산업협회(RIAA)가 지난 5년간 대규모 불법 복제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담당해온 '미디어센트리(MediaSentry)'와 협력을 중단, 지난 소송포기 정책의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됨.	
<b>MP3 무료배포 NIN의 앨범, 아마존닷컴 2008년 최다판매음반 선정</b>	6
CCL 조건 아래 무료로 공개됐음에도 발매 첫 주 앨범 80만장 한꺼번에 팔려 160만 달러의 매출. 합법적인 창작과 공유의 가치가 더 큰 상업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 될 듯.	
[음악업계 동향]	8
- 김 훈	
<b>SKT 중국 3세대 이동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b>	8
SKT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유니콤이 중국 3세대(3G)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텔레콤의 대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b>장기하와 얼굴들 싱글음반 1만장 판매 돌파</b>	8
인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지난해 10월에 발매한 싱글음반이 1만 장 판매고를 넘어섰다.	
<b>모바일 콘텐츠 불법 유통 심각 - 음원변형 유포행위</b>	8
"벨소리를 가공해서 올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며 "동일성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변형시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b>유니버설 뮤직 다음달 중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 판매 예정</b>	9
유니버설과 스타벅스가 손을 잡고 매장 내 음반판매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b>기타 단신 등</b>	9
- "中, 일본에 저작권 등록 센터 설치"	
- 인사동정 레인콤 이명우 대표이사 부회장, 김군호 사장 선임	

[소비자 동향] ..... 10  
 - 서상아

**잠시 쉬어가는 아이들과 상승세를 보이는 오디오형 가수들 ..... 10**  
 새해의 첫 음반 차트에서도 음반 판매량이 더욱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방송 활동을 접은 아이돌 가수들의 판매량 저조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소라와 윤상, 이은미 등 오디오형 가수들의 음반 판매가 저력을 보여주면서 화려한 연말 분위기 이후 차분한 곡들의 강세가 감지되고 있었다.

**음원 사이트 별 혼돈 속 <총 맞은 것처럼> 강세 ..... 13**  
 <총 맞은 것처럼>의 전 차트 석권이 깨지기는 했으나 1위 랭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곡들의 소소한 차트 내 순위 변동이 활발하였다. 더불어 각 음원 사이트 별로 강세를 보이는 곡이 각각 달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음원 순위가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언론 동향] ..... 15  
 - 박진석

**동방신기 4집, 마침내 50만장 돌파..... 15**  
 언론은 지난8일, 동방신기 4집 'MIROTIC'이 50만장을 돌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2003년 529,416장이 판매된 '김건모 8집' (한국음반산업협회 기준) 이후 5년 만의 기록으로, 침체된 음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자료 인용)

**OST, 음반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 15**  
 최근 불황기 음반시장에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많은 OST음반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얼마 전 발표된 '박진영-배용준'의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체결은 OST가 콘텐츠로서 갖는 가치의 상승을 방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신 ..... 16**  
 -박진영-배용준, 드라마 제작 '공동 계약 체결' 공식발표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처벌수위 낮춘다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 16  
 - 장정희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어워드' 수상 발표 ..... 16**  
 12월 최고 판매고 백지영, 신인상은 미스에스 선정.

**일본 하우스 음악의 거장, 스키우림 내한공연 ..... 17**  
**제주특별자치도 대만 뮤직드라마 촬영지 유치 ..... 17**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싱가포르 연예 스타 뮤직비디오 촬영지 유치에 이어, 대만 뮤직드라마 촬영지도 유치하여 영상을 통한 해외 홍보에 주력.

**<해 외 동 향> ..... 18**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8

- 고민정, 장정희

**디지털 다운로드가 음악산업을 살리다..... 18**

지난해 영국의 싱글앨범시장은 다운로드로 인해 33% 성장했다. 이는 2008년 영국의 앨범 판매량은 하락했지만 디지털 앨범 시장의 경우 강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DRM-Free로' 음악 산업계가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 18**

- Apple의 iTunes Music Store가 DRM-Free를 실시하다
- Warner Music France가 DRM을 버리다

**미국음반산업협회, '집단 소송 취하' 그 이후..... 19**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RIAA의 집단 소송 취하' 사건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본다.

**주요단신 ..... 20**

- 음반 마케터들, 집안의 여자들을 공략하다.
- SanDisk, iPod와 경쟁할 새로운 플레이어 출시.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 20

- 고민정, 김평수

**비, '레이니즘' 일본발매 하루만에 오리콘 차트 5위..... 20**

지난 2006년 9월 '이터널 레인(Eternal Rain)' 6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인데 현지 제작음반이 아닌 국내 정규앨범의 라이선스 음반이 순위에 올랐다는데 큰 의미. 팬미팅 티켓도 오픈 2시간 여 만에 전석 매진.

**국립중앙박물관서 사물놀이 30년 국제심포지엄 열려..... 21**

키스 하워드 영국 런던대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일본 다이코(太鼓) 연주자인 하야시 에데스, 강준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

## Ⅱ. 국내 동향

### 1. 산업 정책 및 제도

#### 1.1 `저작권 사회협약체` 출범 예정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이용자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가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을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불법 복제, 사용료와 같은 관련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자체 협약을 마련하여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탁단체를 비롯한 저작권자나 OSP, 인터넷 이용자 단체, 저작권위원회 등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의 저작권자와 일반 이용자 또는 저작권 권리자단체와 포털로 대표되는 OSP와의 대립 구도로는 급증하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상설협의체를 통해 권리자단체와 포털은 물론, 그동안 저작권 문제에서 다소 소외돼 온 일반 소비자들까지 포함하여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상설협의체 추진은 최근 급증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과 규제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현재 3회 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명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주요 포털업체 대표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작권 문제를 고소고발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포털 몰아치기로 해결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여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적잖은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출범은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기사]

"문화부 `저작권 사회협약체` 만든다". 전자신문. 2009-01-08

`저작권 상설협의체` 설립, 디지털타임즈. 2009-01-08

#### 1.2 정부와 국회, 묻지마 저작권 소송 근절 방안 고심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가운데 대검이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을 위반한 미성년자 네티즌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고소'가 있을 때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각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6일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 초범인 경우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각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30일 협의 과정에서 각하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고 합의금 중용 수단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소를 남발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검찰도 불기소처분 등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력을 낭비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변재일 의원 등이 제출한 저작권법 수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과 청소년의 무지로 침해한 저작권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신설되어 있다.

**[관련기사]**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처벌수위 낮춘다" 세계일보. 2009-01-07  
 "묻지마 저작권 소송 각하한다" 서울신문. 2009-01-07

**[별첨자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변재일 의원 외**

**제안일 : 2008. 12. 5**

**제안 이유**

이 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의 증가에 따라 그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규정들을 도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 수범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많은 청소년 등이 쉽게 범법자가 되고, 온라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측면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당초 입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함.

이와 같이 최근의 「저작권법」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한미FTA의 저작권 보호 조항이 현행 「저작권법」 보다 공정이용 면에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한미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의 개정사항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그 일부 규정을 한미FTA의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최근 과도한 형사 처벌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 다만, 그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방법, 종류성격, 비중분량, 시장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2조).

다. 피투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4조, 제104조의3 신설).

라.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단서 신설).

**[관련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0I8V1S2Q0T5A1M7I1C0C1B9B4U6Q6](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0I8V1S2Q0T5A1M7I1C0C1B9B4U6Q6)

**1.3 美 음반협회, 불법복제 증거수집대행사와 결별**

미음반산업협회(RIAA)가 지난 5년간 대규모 불법 복제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담당해온 '미디어센트리(MediaSentry)'와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 판이 보도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RIAA가 "불법 음원 사용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더 이상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RIAA는 디지털 음악 파일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소송이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소송 비용도 천문학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강경책' 대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차단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디어센트리는 개인의 파일 공유 폴더에서 불법 복제된 음악을 찾아내 다운로드하고 법정에서 이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해왔다. RIAA는 불법 음반 유통과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RIAA로부터 고소당한 사용자 수십명을 변호해온 레이 베커먼 변호사는 "이번 RIAA의 결정으로 의뢰인들이 결국 승리했다"며 "미디어센트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RIAA는 대량 음악 파일을 유통시키는 사용자 추적을 위해 미디어센트리 대신 코펜하겐 소재 디텍넷(DtecNet) 소프트웨어를 협력 파트너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Changing Tack, RIAA Ditches MediaSentry" <http://online.wsj.com/> 2009-01-05

**1.4 MP3 무료배포한 NIN의 앨범 , 아마존닷컴 선정 2008년 최다판매음반 선정**

2008년 3월, 나인 인치 네일스(NIN)가 새 앨범 '고스트 I-IV'(Ghosts I-IV)에 CCL을 붙여 무료

mp3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상업적 실패를 접했다.

### Bestselling Albums of 2008



1. **Ghosts I-IV** by Nine Inch Nails
2. **Viva La Vida** by Coldplay
3. **Narrow Stairs** by Death Cab For Cutie
4. **Juno - Music From The...** by Various Artists
5. **3 Doors Down** by 3 Doors Down
6. **Vampire Weekend** by Vampire Weekend
7. **Sleep Through The Static** by Jack Johnson
8. **A Hundred Million Suns** by Snow Patrol
9. **Modern Guilt** by Beck
10. **Perfect Symmetry** by Keane

'고스트 I-IV'는 4장을 묶은 앨범으로 각 장마다 9곡씩, 전체 36곡이 들어 있다. 나인 인치 네일스는 곡 전체를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용'(BY-NC-SA)의 CCL 조건으로 공개했다. DRM도 적용하지 않은 고음질 MP3 음악을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고스트 I-IV'는 CCL 조건 아래 무료로 공개됐음에도 발매 첫 주 앨범 80만장이 한꺼번에 팔려나가며 16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아마존닷컴이 집계한 '2008년 베스트셀러 앨범'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빌보드 일렉트로닉 앨범' 차트와 '빌보드 200'에서도 잇따라 1위에 올랐다. 음악공유 서비스 라스트닷컴FM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앨범' 4위로 '고스트 I-IV'를 꼽았다. '고스트 I-IV'은 지난 한 해 동안 522만 여회나 라스트닷컴FM을 통해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재생(일명 '스크로블')됐다.

CCL을 붙였다고는 하나 사실상 고음질 신곡을 무료로 듣도록 한 것인데,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저작권을 통한 소송보다 합법적인 창작과 공유의 가치가 더 큰 상업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NIN의 예에서 보듯,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공유하면서 비즈니스 성과도 올리는 방법이 있다. NIN은 온라인 음원 유통 방식이 온전히 저작권 울타리 아래 갇혀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NIN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음악성을 홍보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NIN의 '고스트 I-IV'는 'BY-NC-SA'의 CCL 조건을 내걸었다. 요컨대, 저작자를 표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곡들을 자유롭게 변형해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으로 재창조해도 된다는 뜻이다. '고스트 I-IV'는 NIN의 저작물이지만, 이 곡들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훨씬 많은 창작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론 재창조한 곡도 'BY-NC-SA'를 따른다는 조건에서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BY-NC-SA**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 표시하는 CCL 영문 약칭

#### [관련기사]

"NIN's CC-Licensed Best-Selling MP3 Album" [ [www.creativecommons.org](http://www.creativecommons.org) Fred Benenson. 2009-1-9]



## 2. 음악업계 동향

### 2.1 SKT 중국 3세대 이동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

SKT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유니콤이 중국 3세대(3G)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텔레콤의 대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차이나유니콤의 3대 주주인 SK텔레콤(지분율 3.8%)은 다양한 모바일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한 3세대 사업자 선정이 차이나로 확정될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중국시장 내에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목타는' SKT, 中 3G 시장 잡을까? [머니투데이 2009/01/08] 외

### 2.2 장기하와 얼굴들 싱글음반 1만장 판매 돌파

인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지난해 10월에 발매한 싱글음반이 1만 장 판매고를 넘어섰다. 네티즌의 입소문 등으로 흥대 인디씬의 대박 기준이라 할 수 있는 1만장 판매를 돌파한 것이다.

현재 이들은 정규1집을 2월에 발매할 예정이며, 곡 녹음도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정규 1집은 공CD에 직접 제작한 싱글과는 달리 음반발매 공장에서 제작할 것이라고 한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싸구려 커피', '달이 차오른다' 등의 곡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UCC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이들이 속해있는 봉가봉가 레코드는 여러 인디뮤지션들의 음반들 제작하고 있는 전문 레이블이다.

#### [관련기사]

'1만장' 장기하, "음반 500장 정도 나갈 줄 알았는데..." [매일경제 - 2009년 1월 6일] 외

### 2.3 모바일 콘텐츠 불법 유통 심각 - 음원변형 유포행위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모바일 벨소리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료 다운로드 중 일부가 유명 노래를 짜깁기한 형태의 편집 벨소리로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을 이용하여 10대들이 편집한 벨소리는 근본적으로 저작권에 접촉될 수 있으며, 모바일 포털을 이용한 배포 및 확산 역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또한 10대들이 이런 행동에 저작권 위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디지털 데일리 1월 8일자 보도에서 음제협 법무팀의 김재환 팀장은 "벨소리를 가공해서 올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며 "동일성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변형시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유저들이 포털 등에 올려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경우 올린 사람과 내려 받은 사람이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며 "장소를 제공한 업체 역시 행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팀장은 "무료로 공유하게 한다지만 장소 제공자는 트래픽 증가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만큼 포털, P2P 업체들의 저작권법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키(휴대폰 콘텐츠 제공 포털)측은 "현재 1시간마다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작권 있는 곡들은 삭제를 하고 있다"며 "저작권 계약을 추진해서 저작권 있는 음원은 유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모바일 콘텐츠 불법 유통 심각 [디지털데일리 1월8일]

**2.4 유니버설 뮤직 다음 달 중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 판매 예정**

정부가 지난해 9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커피 매장 내 음반판매를 허용하기로 하자, 유니버설과 스타벅스가 손을 잡고 매장 내 음반판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러한 서비스 선진화는 음반유통시장의 위축에 따른 새로운 유통채널의 필요성에 의해 진척이 되었으며, 관련 법규를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에 따라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하여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음반 유통의 다양화(전통적 음반매장이 아닌 대형할인마트 판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향후 해당 판매매장의 음반 판매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스타벅스내 음반판매 물 건너갈뻔한 사연 [이데일리 - 2009년 1월 6일]

**2.5 기타 단신 등**

**- "中, 일본에 저작권 등록 센터 설치"**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을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창구가 올해 4월께 도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中, 일본에 저작권 등록센터 설치" [매일경제 - 2009.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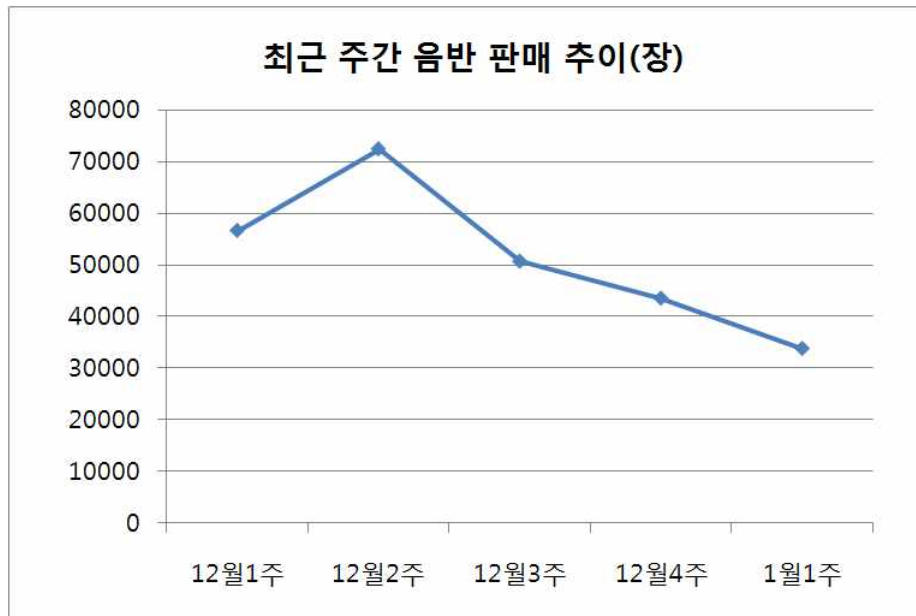
**- 주요기업 인사동정**

- 레인콤은 혁신 경영정책 일환으로 이명우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김군호 수석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 3. 소비자 동향

#### 3.1 음반동향 : 잠시 쉬어가는 아이돌과 뜨는 오디오형 가수들

2009년 새해 첫 주(1월 1일 ~ 1월 7일)의 음반동향은 큰 변화 없이 작년 연말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주보다 만 장 가까이 음반 판매량이 더욱 하락하면서 1위부터 20위까지의 판매량은 3만 장을 약간 웃돌았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 1일 - 7일)

금주 음반차트는 판매량의 변동만 있었을 뿐 최상위권의 순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빅뱅, 이소라, 백지영의 순으로 랭크되었다. 이로서 음반 발매 두 달이 넘어선 빅뱅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본격적인 활동을 마감함으로써 음반판매량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2위에 랭크된 이소라 역시 지난 달 발매 이후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음반처럼 발매 초기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낙폭 없이 실속 있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또한 이번 주 음반차트에서 새로운 점은 오랜만에 신보가 출시되어 차트 안으로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1월 7일 발매된 소녀시대의 새로운 미니앨범은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각종 티저 마케팅과 음원 마케팅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다. 하루 판매량으로 주간 판매량 5위에 랭크된 소녀시대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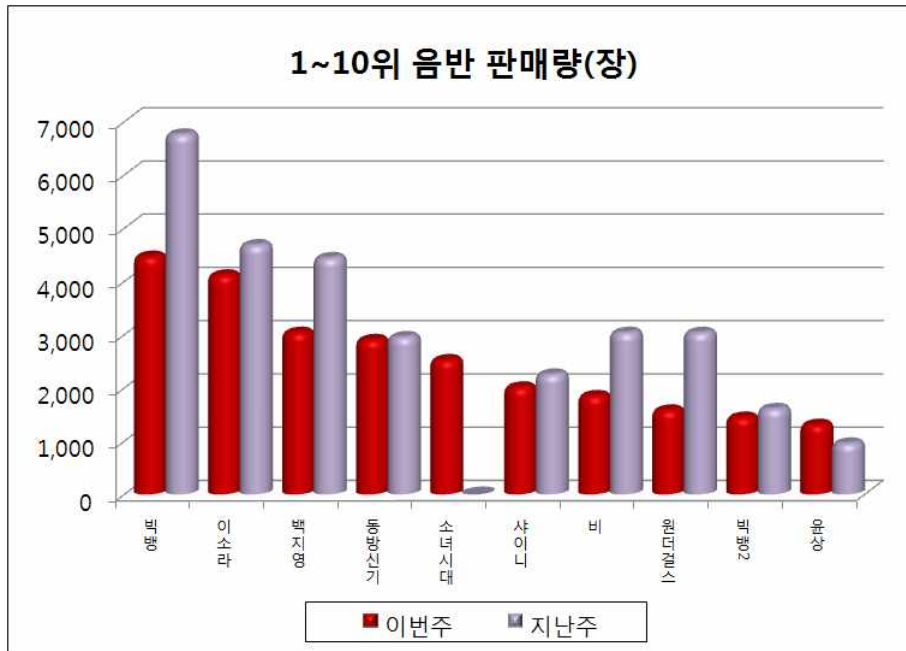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4,468	6,763	2008-11-05
2	-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4,117	4,684	2008-12-17
3	-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3,037	4,441	2008-11-14
4	▲3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2,902	2,956	2008-09-26
5	진입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2,524	0	2009-01-07
6	▲2	샤이니 1집 / The Shinee World(A버전)	에스엠	가요	2,011	2,254	2008-08-29
7	▼3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1,849	3,037	2008-10-15
8	▼2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1,579	3,037	2008-09-30
9	-	빅뱅 미니앨범3집 / Stand Up	엠넷	가요	1,444	1,606	2008-08-08
10	▲4	윤상 / Song Book : Play With Him	예당	가요	1,309	958	2008-12-11
11	▲1	정엽 1집 / Thinkin' Back On Me	엠넷	가요	1,174	1,255	2008-11-04
12	▼7	김종국 5집 / Here I Am	엠넷	가요	1,039	3,388	2008-10-22
13	▲4	소녀시대 1집 / 소녀시대	에스엠	가요	985	843	2007-11-01
14	▼1	슈퍼주니어 해피 / 요리왕	에스엠	가요	978	1,039	2008-06-05
15	▲1	원더걸스 1집 / The Wonder Years	로엔	가요	796	850	2007-09-13
16	▲27	에스지워너비 5집 / My Freund	엠넷	가요	715	465	2008-04-24
17	▼6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708	1464	2008-12-04
18	▲4	이은미 6집 / Ma Non Tanto	소니	가요	705	661	2005-11-07
19	▼1	엠씨더맥스 6집 / Via 6	비타민	가요	703	769	2008-09-30
20	▲4	더블에스501 / U R Man	엠넷	가요	688	607	2008-11-24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월 1일 - 7일)

1위에서 10위까지의 음반 판매량을 살펴보면 강세를 보여주었던 아이돌 그룹의 음반 판매가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전체 음반 판매량의 하락 속에서도 큰 낙폭 없이 선전했었던 빅뱅, 원더걸스, 비 등의 판매량이 새해 들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연말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하면서 음반 판매 역시 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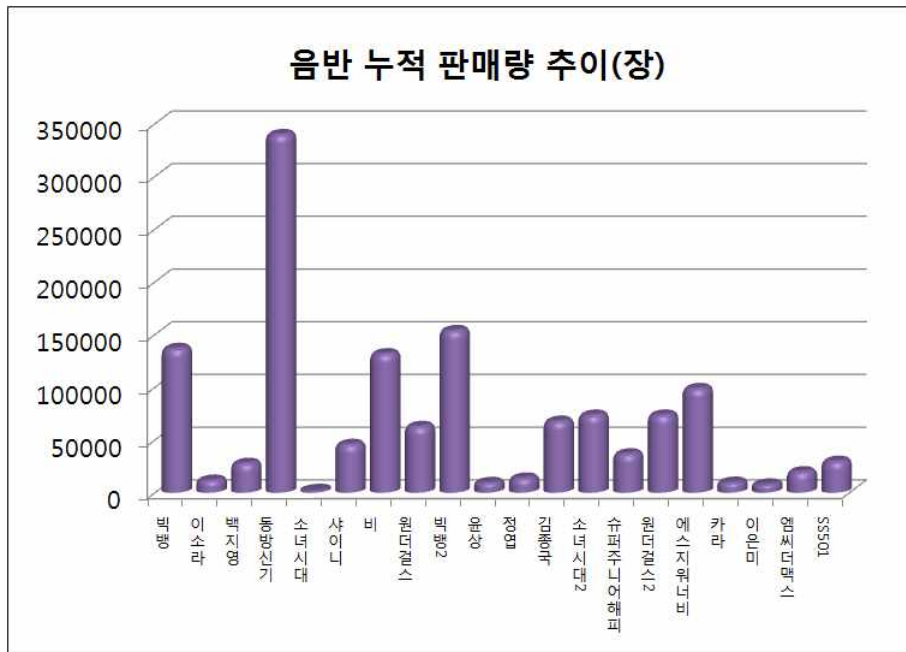
이처럼 아이돌 가수의 음반 판매량도 저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상, 이은미 등의 음반 판매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다. 발매 초기 강세를 보였던 윤상의 앨범은 지난

연말 부진을 보이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10위권 안으로 복귀하였다. 또한 이은미의 음반의 경우 발매된 지 3년이 넘은 음반으로 수록곡 중 <애인 있어요>가 최근 방송을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1일 - 7일)

소녀시대의 신보가 출시되긴 했지만 주간 판매량 중 하루 판매량 밖에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적 판매량은 지난 연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1/3일, 단 이원미 음반의 경우 2008년 1월 5일부터 2009년 1월 3일까지 누적 판매치)

새해의 첫 음반차트는 저조한 성적으로 시작하긴 하였지만 신보의 차트 진입이 눈에 띄고,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릴만한 대형가수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리쌍, 바비킴 등 일정한 팬층의 수요가 있는 가수들이 음반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 음반 판매량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이다.

### 3.2 음원동향 : 음원 사이트 별 혼돈 속 <총 맞은 것처럼> 강세

2009년의 첫 주인 1월 1주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되어 오던 <총 맞은 것처럼>의 전 차트 석권 기록이 깨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4개의 사이트 중 여전히 3개 사이트에서는 <총 맞은 것처럼>이 1위를 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차트 변동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총 맞은 것처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뒤를 이어 케이윌의 <러브119>, 빅뱅의 <붉은 노을>, 카라의 <Pretty girl>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음반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빅뱅은 여전히 음원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음반 쪽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카라가 10대들의 호응을 얻으며 음원 정복에 나서고 있다.

폭발적인 영향을 주는 신보가 없었던 탓에 지난주에 이어 금주 음원 차트는 소폭의 순위 변동만 있었을 뿐 대세로 분류할 만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각 음원사이트마다 음원의 진입시기와 마케팅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순위	박스 12/25 ~ 12/31	엠넷 12/29 ~ 1/4	도시락 12/29 ~ 1/4	멜론 12/28 ~ 1/3
1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김경록 / 이젠 남이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2	케이윌 / 러브119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동방신기 / 주문	케이윌 / 러브119
3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케이윌 / 러브119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노을
4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노을	빅뱅 / 붉은노을	카라 / Pretty Girl
5	빅뱅 / 붉은노을	SS501 / U R Man	케이윌 / 러브119	린 / 매력쟁이
6	린 / 매력쟁이	카라 / Pretty Girl	SS501 / U R Man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7	이승철 / 듣고 있나요	린 / 매력쟁이	이지아 / 러브 바이러스	SS501 / U R Man
8	거미 / 내게로 오는 길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린 / 매력쟁이	원더걸스 / Nobody
9	SS501 / U R Man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김경록 / 이젠 남이야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10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민경훈 / 하루	원더걸스 / Nobody	비 / Rainism
11	팀 / 나란 사람	이승철 / 듣고 있나요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손담비 / 미쳤어
12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민경훈 / 하루	은지원 / Dangerous
13	임재범 / 만남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비 / Rainism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14	애니 / 널 사랑해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비 / Love Story
15	마티타마우스 / 패밀리	비 / Rainism	빅뱅 / Number1	빅뱅 / 하루하루
16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원더걸스 / Nobody	럼블피쉬 / 비와 당신	이수영 / 이런 여자
17	이지아 / 러브 바이러스	이지아 / 러브 바이러스	손담비 / 미쳤어	민경훈 / 하루
18	민경훈 / 하루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박정현 / 윈터키스	브라운아이드걸스 / 어쩌다
19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거미 / 내게로 오는 길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럼블피쉬 / 비와 당신
20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동방신기 / 주문	태연 / 들리나요	언터처블 / It's Okay

박스뮤직의 경우 김범수의 신곡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진입 첫 주 만에 3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지만 엠넷의 경우 7위에 머물렀으며 다른 사이트는 음원의 순위 진입 자체가 없었다. 김경록의 <이젠 남이야> 역시 엠넷에서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밀어내고 1위에 랭크되었지만 도시락에서는 9위에 머물렀고 다른 사이트의 경우 20위권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이트 별로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차트 진입 곡들의 체류가 계속 되고 있어 전체적인 차트 양상의 변화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새해의 음원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 차트의 변화 양상을 기대해보도록 하자.



## 4. 언론 동향

### 4.1 동방신기 4집, 마침내 50만장 돌파

언론은 지난8일, 동방신기 4집 'MIROTIC'이 50만장을 돌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2003년 529,416장이 판매된 '김건모 8집'(한국음반산업협회 기준) 이후 5년 만의 기록으로, 침체된 음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자료 인용)

동방신기의 4집 'MIROTIC'은 아시아를 무대로 활약을 펼친 동방신기가 1년 7개월 만에 선보인 새 앨범으로, 발매 전부터 선주문만 30만장을 기록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출시되자마자 한국 음반차트 1위 석권은 물론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음반판매차트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 행보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의 50만장 돌파는 앞서 얘기했듯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던 대한민국 음반시장에서 5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침체된 음반시장에 일련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가요 역사속의 남다른 의미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동방신기, 4집 'MIROTIC' 50만장 돌파! [한국경제 2009-01-08]

동방신기, 4집 50만장 돌파 국내음반시장사상 5년 만의 쾌거 [동아일보 2009-01-08]

'50만장 돌파' 동방신기, 한국 가요史를 다시 쓰다 [이데일리 2009-01-08]

동방신기 '문화 대통령' 서태지 넘었다 [한국일보 2009-01-06]

음반 100만장 시대 마지막 가수는?.god·김건모 [스타뉴스 2009-01-08]

### 4.2 OST, 음반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최근 불황기 음반시장에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많은 OST음반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얼마 전 발표된 '박진영-배용준'의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체결은 OST가 콘텐츠로서 갖는 가치의 상승을 방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ST 위상의 변화는 드라마 OST에 대형 가수들의 참여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한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OST를 부른 소녀시대의 태연은 수록곡 '들리나요'로 많은 지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지난 12월 10일 열린 2008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yeep인기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드라마의 시청률과 관계없이 OST만 인기를 누리는 사례도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OST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드라마 OST 음반은 1만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톱가수들이 참여한 OST 음반이 많아지면서 음반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한류 스타들의 참여로 일본 등 해외 판매량도 증가하는 등



음반시장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팝 음반시장에서는 OST열풍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영화 '맘마미아'의 OST는 2008국내 팝 음반 판매량 1위인 16만 5천장을 판매하였고 영화 '원스'의 OST역시 누적 판매량이 6만 3천장에 달하여 3위에 오르는 등 강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OST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꽃보다 남자'에서 SS501이 부른 OST수록곡 '내 머리가 나빠'역시 일찍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배용준-박진영의 합작드라마 '드림하이'는 OST에 박진영이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렇듯 침체된 음반시장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OST의 인기몰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음악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가요계 불황뚫는 '드라마OST' [헤럴드경제 2009-01-08]
- 드라마OST 인기...불황 음반시장 효자노릇 '톡톡' [헤럴드 생생뉴스 2009-01-08]
- [가요] OST 전성시대 [위클리조선 2009-01-06]
- 재활용·가창력·제목변경..'꽃남'OST의 모든것 [스타뉴스 2009-01-07]
- 2008국내1위 팝음반은 16만5천장 '맘마미아' [연합뉴스 2009-01-06]

**4.3 주요 단신**

**-박진영-배용준, 드라마 제작 '공동 계약 체결' 공식발표**

JYP엔터테인먼트는 아시아 문화콘텐츠 기업 키이스트와 드라마 제작을 위한 공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 박진영-배용준, 드라마 제작 '공동 계약 체결' 공식발표 [OSEN 2009-01-06]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처벌수위 낮춘다**

검찰과 경찰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각하하는 등 형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 반발이 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처벌수위 낮춘다 [세계일보 2009-01-07]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어워드' 12월 최고 판매고 백지영, 신인상은 미스에스 선정**

한 달 동안 싸이월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가수와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신인가수에게 상을 수여하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음악 시상식인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로 지난달 최고의 배경음악 판매고는 애절한 발라드 곡 <총 맞은 것처럼>

으로 발라드 퀸 백지영이 수상했으며, 가장 괄목할 만한 신인에게 주어지는 'Rookie Of The Month'에는 씨야 남규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멜로디가 함께 한 <바람피지마>의 미스에스가 선정되었다.

이 두 수상 팀의 수상인터뷰 내용은 싸이월드 싸이BGM 내 디지털 뮤직 어워드 수상자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시상식 및 수상축하행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롯데월드 가든 스테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사이트]**

[http://music.cyworld.com/chart/chart\\_dma\\_last\\_award.asp](http://music.cyworld.com/chart/chart_dma_last_award.asp)

**5.2 일본 하우스 음악의 거장, 스키우럼 내한공연**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프로듀서 겸 하우스 DJ인 스키우럼이 오는 1월 9일(금) 홍대 뮤지움에서 내한 공연을 가졌다.

**[관련기사]**

일본 하우스 음악의 거장, 스키우럼 내한공연 [프리존뉴스 - 2009년 1월 5일]

**5.3 제주특별자치도 대만 뮤직드라마 촬영지 유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싱가포르 연예 스타 뮤직비디오 촬영지 유치에 이어, 대만 뮤직드라마 촬영지도 유치하여 영상을 통한 해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만 뮤직드라마는 대만의 방송 콘텐츠 전문 제작사인 '치동전파공사(稚僮傳播公司)'가 대만 유명 연예인 장심연(張沁妍, 여)과 임우위(林佑威)가 출연하며 중화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동남아 연예스타, 제주서 뮤직드라마 촬영 [미디어제주 - 2009년 1월 4일] 외

### Ⅲ. 해외 동향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1 디지털 다운로드가 음악 산업을 살리다

과거 인터넷 발달에 따라 디지털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지자 음반업계들은 디지털 다운로드가 음악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BPI(British Phonographic Industry)는 2008년 한 해 동안 주요 음반업체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형식을 합쳐서 약 1억 1500만장의 싱글앨범을 판매했다고 발표했고, 이것으로 BPI는 2008년이 영국 싱글 앨범 가수들에게 최고의 한 해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2008년의 아날로그 앨범 판매가 약 3.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싱글앨범시장이 성장한 것은 디지털 앨범 시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앨범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디지털 앨범 시장의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다운로드 수는 33% 증가했으며 이와 비슷하게 앨범 다운로드도 약 65% 가량 증가했다.

또한 세계적인 맥락에서 3.2%의 하락도 꽤 주목할 만 하다고 Billboard magazin 편집국장인 Mark Sutherland는 말한다. 미국의 앨범 판매는 한 해 동안 14%나 하락했고, 영국은 예상했던 7-8%의 하락보다 낮은 3.2%의 하락에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다운로드는 과거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음악 시장을 살리는 힘으로 평가받고 있다.

#### [관련기사]

UK music industry owes an awful lot to digital downloads, CrunchGear, NY 2009-01-07  
Downloads boost 2008 single sales, BBC News, UK, 2009-01-07

### 1.2. 'DRM-Free로' 음악 산업계가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

#### 1.2.1. Apple의 iTunes Music Store가 DRM-Free를 실시하다

지난 6일 화요일, Apple사는 앞으로 6년간 iTunes Store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관련된 음악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DRM이 없는 음악들만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닷컴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존닷컴과 같은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자들은 이미 DRM-Free 음원들을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Apple사는 우선 자사가 소유한 약 1000만개의 트랙 중, 우선 800만개의 트랙은 iTunes Plus에서 즉시 사용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이번 1분기가 끝날 무렵에는 나머지 트랙들도 DRM-Free 상태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iTunes의 DRM-Free 음악은 아마존닷컴의 mp3 파일과는 달리 AAC형태의 파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AAC형태의 파일이란** : AAC는 MP3의 보급과 함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오디오 압축 포맷입니다. 공식 명칭은 MPEG-2 AAC(Advanced Audio Coding), 혹은 MPEG-2 NBC(Non Backwards Compatibility)이며, MP4는 MPEG-2를 기반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 포맷으로, MPEG-1을 기반으로 하는 MP3와는 구조상 많이 다름.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MP4는 최대 30%까지 파일 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음질도 향상시킴. MP3보다 인코딩 시간이 최대 10배 이상 느리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차츰 개선될 것으로 있음.

**[관련기사]**

iTunes Store and DRM-free music: What you need to know, Macworld, CA, 2009-01-06  
 Apple iTunes Music Store Going DRM-Free, InformationWeek, NY, 2009-01-06

**1.2.2. Warner Music France가 DRM을 버린다**

iTunes가 DRM-Free를 선언한 다음날, Warner Music France가 FrancMusic, VirginMega와 같은 다운로드 사이트들에 대해 DRM 제한 없이 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 채택 준비 중인 '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에서도 음반회사들이 DRM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Warner Music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Warner Music은 모든 다운로드 장치들에서 DRM-Free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Warner Music은 Warner Music France의 DRM-Free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가 끝날 무렵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Warner Music France ditches DRM, Hollywood Reporter, United States, 2009-01-07

- DRM-Free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의 동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뿐만 아니라 도시락이나 멜론 같은 한국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DRM-Free의 시행은 RIAA가 개인에 대한 손해보상보다는 ISP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현 시점에서 음반회사들이 보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끊이지 않는 디지털 음원시장의 분쟁에서 나온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큰 음반회사들의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만하다.

**\*RIAA** : 미국 음반산업협회

**1.3 미국음반산업협회, '집단 소송 취하' 그 이후**

RIAA가 파일 공유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 시점에서 RIAA는 ISP들이 계획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 관리 기관의 도움이나 입법절차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ISP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 관리 해결이나 사업적인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음반기업들은 유럽에서 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이 미국의 ISP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다고 말한다.

RIAA는 파일 공유자들에 대한 고소는 결국 취하했지만 이러한 소송 캠페인을 통해 공인되지 않은 P2P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공공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들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NPD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13세이상 미국 인터넷 가입자들 중 19%가 여전히 P2P를 통해 음악을 다운 받고 있다. 이는 2003년 RIAA가 자신들의 소송 캠페인을 벌일 때에는 20%였던 점을 봤을 때 '소송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뉴욕의 저작권 로펌인 Loeb&Loeb의 변호사인 Barry Slotnick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2008년 영국의 컨설팅 기업 Entertainment Media Research의 연구에서 P2P를 이용한 사람 중 70%의 사람들이 ISP가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경고하면 음악거래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RIAA의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업체)

\*NPD Group : 미국 시장조사 전문업체

**[관련기사]**

Music industry eases tactics in fighting piracy, Reuters, 2009-01-05

**1.4 주요단신**

**음반 마케터들, 집안의 여자들을 공략하다.**

음반회사들은 음반판매의 급감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집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음반회사들은 여성들을 겨냥해 파티용 음악 앨범을 만들었고, 이것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Music marketers target female shoppers at home, Reuters, 2009-01-05

SanDisk가 iPod와 경쟁하기 위해 MP3 플레이어 '산사 슬롯 라디오(Sansa slotRadio)'를 출시했으며, 이 기기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 1,000곡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슬롯라디오 카드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관련기사]**

CES-SanDisk unveils memory card-based music player, Reuters, 2009-01-07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비, '레이니즘' 일본발매 하루 만에 오리콘 차트 5위**

비가 지난 7일 일본에 발매한 '레이니즘' 아시아판 앨범이 하루 만에 오리콘 차트 5위에 올랐다. 이번 오리콘 차트 진입 순위는 비가 오리콘 차트에서 거둔 가장 좋은 성적으로 비는 지난 2006년 1월 싱글 '새드 탱고'로 1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싱글 '프리웨이'로 9위, 9월에는 '이터널 레인(Eternal Rain)'으로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순위는 현지 제작 음반이 아닌 국내 정규 앨범의 라이선스 음반으로 순위에 올랐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 팬들의 요청으로 1회 추가를 결정한 비의 팬 미팅 티켓은 오픈 2시간 여 만에 전석 매진되기도 했다. 비의 소속사 제이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리콘 차트 5위 진입과 발매에 맞춰 오픈된 추가 공연 분의 티켓이 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다"며 "성공적인 아시아 활동의 조짐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아시아 및 미주 지역 활동이 주를 이룰 2009년 비의 활동이 시작부터 호조를 띄고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비 日 오리콘 차트 5위, 팬미팅 전석 매진 `겹경사` 매일경제, 2008-01-08

가수 비, '레이니즘' 日 발매 하루만에 '오리콘 5위' 중앙일보, 2008-01-08

비오리콘, 앨범 발매당일 5위 "가요계 한류 책임진다" 스포츠서울티브이, 2008-01-08

## 2.2 국립중앙박물관서 사물놀이 30년 국제심포지엄 열려

사물놀이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물놀이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키스 하워드 영국 런던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콘텐츠: 전통예술과 대중예술의 비교'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하워드 교수는 "한국에서 퓨전국악과 창작국악에 대한 후원은 두드러졌지만 전통 국악은 그 기반이 상당히 위축됐다"며 "대중음악 혹은 퓨전국악, 크로스오버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다고 해서 해외에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영국)를 통해 세계음악 범주에 '한국'을 쳐 검색해 보니 38개 트랙 가운데 1개는 일본 작곡가의 다른 작품으로 잘못 나오고 '판소리'를 검색했더니 16개 트랙 가운데 14개는 재즈악단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해외공연 시장의 변화와 전통연희로서의 사물놀이 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사물놀이는 한국에서 대중화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국제화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유한 미학정신과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통로로 사물놀이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평가했으며 사물놀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공연

국제 네트워크의 강화, 사물놀이를 포함한 전통연희를 육성할 수 있는 국립연희단과 연희극장의 건립 등을 제안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 일본 다이코(太鼓) 연주자인 하야시 에데스, 강준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http://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